하루 10시간 활시위 올림픽 2관왕 정조준

과녁에서 화살을 뽑은 이특영이 활 시위를 다시 당기기 위해 사선으로 걸어오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스포츠 포커스

신궁 신화 쏘는 광주체고 이 특 영

딸 부잣집 천덕꾸러기(?) 막내딸로 세상 첫 발

최연소 세계무대 제패… 한국 양궁의 '복덩이'로

"응애~, 응애~"

1989년 12월 2일 화순군 남면 사평리 한 시골집에선 땅이 꺼질듯한 한숨이 쏟아졌다.

딸만 넷인 탓에 마지막 아들을 고대하곤 10개월을 기다렸지만, 다섯째 딸의 울음소리만 방안 가득 울려퍼졌다.

남아선호사상이 적지않게 깔려있던 당시 딸만 내리 다섯을 낳았으니, 집안 분위기는 말 그대로 초상집이었다.

시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었던 며느리는 죄인인 마냥 숨죽여 눈물만 훔쳐냈다고 한다.

'여고생 신궁'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치고 있는 이특영(17·광주체육고)은 이렇게 딸 부잣집의 천덕꾸러기 막내딸로 세상의 첫 빛을 봤다.

"특영이란 이름도 뒤늦게 3살때 지었다"는 아버지 이면식(57)씨는 "특별히 주변 사물에 관심이 많고, 여느 아이들보다 움직이는 양도 특별히 많아, 이웃이던 면사무소 직원과 상의끝에 특별할 특(特), 꽃부리 영(英)으로 호적에 올렸다"고 말했다.

다행히(?) 5년 뒤 연년생으로 두 남동생이 태어나면서 미운털 박힌(?) 막내 딱지는 떼어냈지만, 그때부터 온 가족의 관심은 동생들의 차지가 됐다.

이특영은 아들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안고 태어난 탓인지 어려서부터 또래 남자 친구들보다도 운동에 특별한 소질을 보였다고 한다.

두암초등학교 4학년때 양궁 감독이던 정남진 담임선생님은 이러한 이특영의 운동 감각을 눈여겨 봤고, 양궁부 입단을 권유했다.

세계적인 여궁사가 양궁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다.

이특영은 양궁 입문 후 빠른 적응을 보였고, 동명중 2학년땐 전국소년체전 2관왕, 3학년땐 3관왕을 거머쥐며 신궁 소녀의 탄생을 알렸다.

이특영의 '신궁' 기질은 광주체육고 진학 이후 일취월장했다.

이특영은 광주체고 1학년때인 지난 2005년 최연소 국가대표로 선발돼 같은해 제43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며 세계 양궁 사상 최연소인 만 15세로 세계 대회를 제패하는 기록을 세웠다.

2006년엔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했고, 제 2차, 4차 월드컵국제양궁대회에서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3위를 잇따라 획득한 뒤 제 15회 도하 아시안 게임에선 단체전 우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고교 3학년이 된 이특영은 올해를 맞는 각오도 남다르다.

우선 제 45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것을 1차 목표로 정했다.

그동안 각종 세계대회에서 따낸 단체전 금메달은 수두룩하지만, 개인전은 2위가 최고 성적이기 때문이다. 또 오는 10월 고향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도 목표중 하나다.

여기에 욕심많은 다섯째 딸 답게 모든 양궁 선수들의 최종 목표인 올림픽 2관왕의 꿈도 함께 꾸고 있다.

칼바람이 매섭던 지난 10일 광주체고 양궁 훈련장에서 만난 이특영은 하루 10시간을 훈련 시간으로 정해놓고 500번 이상의 활시위를 당기고 있었다. 훈련에 집중하기 위해 그 흔한 휴대폰을 갖는 것도 대학 진학 후로 미뤘다고 했다.

'속사형 활쏘기가 자신의 장점'이라는 그는 세계 정상에 오른 훈련 노하우를 묻자, "남들보다 조금 더 연습하는 것"이라며 "요즘은 기초체력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팔굽혀 펴기와 러닝을 꾸준히 하는게 비법이라면 비법"이라고 말했다.

이특영은 또 "국내에서 최고의 기량에 올라선 경쟁자들이 30여명 정도에 이른다"면서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하루 10시간의 훈련 시간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목표인 올림픽 2관왕의 꿈을 2008베이징 올림픽에서 이루고 싶다는 그는 "양궁에선 타고난 천재는 없고, 노력하는 천재만 있다"면서 "모든 성적은 얼마만큼 훈련하고 노력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며 17세 소녀답지 않은 속깊은 말들도 이어냈다.

'천덕꾸러기 막내딸이 복덩이가 됐다'는 말에 이특영은 "앞으로 남은 전국체전, 세계선수권대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최정상에 올라 진짜 복덩이가 되고 싶다"라며 해맑게 웃었다.

30여분간 진행된 인터뷰를 끝낸 이특영은 곧바로 양궁 훈련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훈련 때문에 더 오래 얘기를 나누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잠시 뒤 연습장 사선(射線)에 들어선 이특영의 날카로운 눈빛을 볼 수 있었다.

좀전에 웃으며 얘기를 나누던 천진난만한 17살 어린 소녀의 눈빛이 아니었다. 활 시위를 당기는 당찬 모습을 보니 올림픽 2관왕의 꿈도 그리 먼 얘기는 아닌 듯 보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특영 주요 입상 경력

▲2003년 전국 소년체육대회 2관왕
▲2004년 전국 소년체육대회 3관왕
▲2005년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우승, 개인전 2위
▲2006년 제 2차, 제 4차 양궁월드컵 단체전 우승, 개인전 3위, 제 15회 도하아시안게임 단체전 우승

'여고생 신궁' 이특영이 지난 10일 광주체고 양궁훈련장에서 과녁에 꽂힌 자신의 화살을 빼내고 있다. 하루 10시간동안 500발 이상의 화살을 쏜다는 이특영은 그 과녁도 연습량 만큼이나 화살자국이 촘촘히 나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써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본사 시판부(062)222-8111

킹스골프아카데미
목포 상동 노동청뒷편 MFS맞춤전문 클럽,클럽피팅,샤프트교환 미국 정통체손골프스쿨 회원수시모집(프로골퍼적극환영)
☎(061)287-5050

강 남 수 퍼
계림동 299-8번지
대표 염 수 연
☎(062)226-3521

백 천 암
풍암동 벽립약국건너편 사주, 관상, 궁합,사업,금전운 운로를 알고 행하면 실패는 없다
☎(010)5393-0557

대서양횟집
풍암동 서창농협 운리지점건너편 각종회 전문
대표 김 정 님
☎(062)653-0094

먹보돼지삼겹
운남동 천지연사우나 건너 돼지삼겹살전문 단체손님환영
대표 한 동 아
☎(062)955-1773

홀인원골프클럽
첨단우리은행사거리 새롭게 문고맞은편 코오롱스포츠3층 홀인원 회원수시모집,프로골퍼1 : 1렛슨지도
대표 김 용 문
☎(062)973-5551

영 지 철 학 원
학동 학동우체국옆골목 사주, 관상, 택일 찾아오신분은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역학사 구 병 림
☎(011)613-8235

구황연능역학원
양동 돌고개 삼거리 누구나 평생 30살후 흥망성쇠 3번 읍니다
역학사 구 병 림
☎(062)366-8766

맛있는분식
계림동 계림오거리옆 옛날 엄마의 참맛 꼭! 한번드셔보세요
대표 조 종 자
☎(062)227-8861

누나네불갈비찜
문흥동 석암돌솥밥옆 돼지불갈비찜,갈치찜,병어찜전문
대표 이 향 옥
☎(062)267-0592

창 평 국 밥
봉선동 겨자씨교회 맞은편 창평국밥,소머리국밥'최고의 맛 최선의 서비스'
대표 김 훈
☎(062)651-0807

장 성 가 마 골
중흥동 평화프라자골목 한우전문
대표 황 봉 수
☎(062)514-5256

청진동해장국
회정동 서부코아 새마을금고사이 옛날순대국밥,새끼보국밥,특대규해장국,콩나물해장국
대표 조 춘 화
☎(062)367-2759

우진석재산업
회정동 월드컵경기장맞은편 3층 묘지조성,조경,석축,이장,유골함 도,소매 가족납골당,납골묘,원돌레석,사각묘테석
☎(062)374-9231

운동화세탁전문
회정동 염주시거리 광덕고후문사이 전화주시면 수거배달 확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대표 노 영 미
☎(062)374-6364

정관장홍삼남문로지점
학동 그랑프리호텔옆
대표 고 성 만
☎(062)232-2304

돼 지 나 라
문흥동 문흥지구대앞 골목 돌판갈비찜, 생삼겹, 갈비찜, 갈비탕 연희석 완비
☎(062)264-8821

삼 정
문흥동 문흥2동사무소옆 아구탕찜,불닭기찜탕,갈치조림,병어조림,계절회무침 산삼삼계탕,사슴고기샤브샤브,사슴고기육회전문
☎(062)251-1233

테 마 호 프
주월동 덕산APT 맞은편 테마호프 생맥주 아늑한 공간 최선의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011)612-2347

돼지집숯불구이
용봉동 1380번지 택지지구내 한우숯불양념구이,돼지숯불양념구이전문
대표 박 현 숙
☎(062)528-2292

하 미 수 영 장
용봉동 전대후문쪽 하미스포렉스내 회원수시모집 개장06시부터~19시30분까지
☎(062)269-5757

크렌시아(서방점)
우산동 서방시장건너 캐주얼 전문점
대표 최 상 범
☎(062)525-5670

승일공인중개사
남구 송하동 효천역옆 APT,주택,토지,임야 상담을 환영합니다
대표 이 승 영
☎(062)682-7181

(주)건 시 스 템
신가동 신가병원앞 PC방오픈 중고PC,박람회TV,세트판매(고리1개+양치1개=10만원) 홈시어터전문
대표 이 현 우
☎(062)952-7989

한우누렁송아지
화정4동 광주은행사거리 먹자골목 한우전문점 셋트판매(고리1개+양치1개=10만원)
대표 김 순 남
☎(062)385-9292

그린카월드
운남동 주공 414동앞 경정비,세차,오일교환,브레이등 차량의 모든것해결
대표 설 영 환
☎(062)955-3651

월 성 국 악 사
계림동 대금,단소,소금(관악기),대중가요,주3회교육 수시접수 회비월5만원 수강회원모집,초보자환영
☎(017)601-4169

한 우 리
중흥동 태봉골옆 평화프라자골목 한우전문점
대표 김 안 창
☎(062)512-9595

영빈관웨딩홀
용봉동 하미스포렉스내 부케1SET,초대장200매, 결혼식케익,샴페인무료증정
☎(062)261-2000

제이티에쓰(주)
농성동 한전맞은편 이르바이트생,주부사원,가인텔러 수시모집 단기간 고수익보장
☎(062)365-6465

일양약품(주)광주지점
각화동 동광주웨딩프리자 2층 사무실 이전
대표 김 홍 균
☎(062)266-1010

맛 미 정
농성동 서구청앞 청둥오리 전문점
대표 김 경 님
☎(062)352-8045

히말라야등산·아웃도어
풍암동 염주체육관내 우일레포츠타운1층 등산레져용품 총판
대표 박 남 수
☎(062)673-8848

옛 맛 가 든
하남로 임곡방향 하남파출소뒤 생삼겹살,약오리로스,생태탕등 전문
대표 김 기 석
☎(062)952-8522

몰딩과조각
중흥동 데이럼사거리쌍용자동차건너편 생활속,웰빙문화실현,옹장하고 섬세한조화물 정원구성용품, 이트디자이너가 직접시공
☎(062)511-8280

광장숯불구이
누문동 202-1번지 양동복개상가앞건너 골목 숯불구이 전문점
대표 조 성 종
☎(062)525-9695